



충남도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 ‘주먹구구’

일부 선정 업체 전문가 없거나, 이름만 빌리는 사례도... 전문 · 신뢰성 떨어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4월 충남도의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학술용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 평가가 허술해 서류만 잘 꾸미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정책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김연 의원(비례)에 따르면 충남도가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으로 나뉜다. 기술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에 20점을 부여해 최종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기준이다.

또 다른 B 연구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연구 책임자는 다른 대학 교수 이름을 올리는 등 책임 기관과 연구자 소속이 일치하지 않아 학술용역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B 연구기관에는 과제 관련 전문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명은 그대로 쓰고, 대표자는 다른 회사 사장 이름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전문 인력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입찰에 응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의 허술한 평가 항목이 이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학술용역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한다”며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절해 신뢰 높은 학술용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현충원, 추석맞이 벌초실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각지의 참배객 및 유족들이 대전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일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윤정)은 정문 화단과 주도로변을 새롭게 정비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와 성묘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묘역에 걸쳐 벌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석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전문성을 알아보는 기술 분야의 항목이 방대한데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정책홍보 ‘제자리’

“신뢰 · 인지도 낮아”... 36.3% 호감 가지고 있지 않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민안전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국민안전처에 대해 들어봤다고 대답한 반면, 28.4%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8.4%에 불과했으며, 국민안전처 정책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2.9%로, 정책홍보나 정책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에 대한 인지도도 별로 높지 않은데 정책 인지도는 이보다 더 낮다”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연구기관의 경영 상태나 수입도 같은 불필요한 항목에 8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설계의 적정성과 결과분석 방안 등 비슷한 항목에 무려 55점을 편성했다. 반면 연구자의 연구수행 실적이나 전문성 등 중요분야에 대해서는 6점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한편 연구기관에 대한 호감도 질문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6.3%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19.1%)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1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기구인데, 호감도나 신뢰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국민안전처 발주로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하는 ‘2015년 국민안전처 정책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됐음.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법으로 수행했으며, 응답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5%p이다. 이정복 기자

ACE 고객부 선정 필수조건은 자격

나눔교육 3.0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 양성

세계 최고 국제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브랜드.

다양한 다분야 실용·비즈니스 공강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융합형 인재

수원대학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합니다.

고재남 대표 10년 경력
국제기업계 인사 10년 경력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시 접수 : 2015년 9월 9일(수) ~ 9월 15일(목) 18:00
입학상담 : 입학팀 041-530-4945 | 입학사정관실 041-530-4950 | 홈페이지 http://ace.sch.ac.kr

SCS | 한국교육정보통신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로 새 발전 계기 될 것”

권 시장, 시민과 아침동행... “대덕구 소외론 있을수 없어”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5일 대덕구 장동계족산에서 ‘제8회 시민과 아침동행’을 갖고 국방기술품 집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이하 국방신뢰성센터)를 활용한 국방산업발전 방향과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시장 구상에 대해 시민과 대화했다.

권 시장은 “대덕구 소외론”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대덕구 소외론”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 6기 시작부터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꼽힌 대덕구의 발전을 고민했고,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선정도 이 중 하나”라며 “유관기관이 많은 대덕특구와의 거리, 대덕구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덕구 상서동을 적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대덕구 소외론”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 6기 시작부터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꼽힌 대덕구의 발전을 고민했고,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선정도 이 중 하나”라며 “유관기관이 많은 대덕특구와의 거리, 대덕구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덕구 상서동을 적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 학생들 정신건강 ‘빨간불’

초중고 학생 25만여명 관심군 분류... 자살생각 2만여명 조사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충청권이 가장 높았으며 나타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검사결과,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4.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4.5%)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키 고통을 겪고 호소하고 있는 학생도 5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신이 전화 오기 전 학교 교실을 부탄가스로 폭파시킨 중학생이, 전화 이후 학교에 수차례 상담신청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매년 초 1·4/중1/고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한 결과,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최근 3년간 25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4여만명은 위험성이 높아 학교 내 지속관리와 전문가 의뢰 등의 2차

적정 관리군 ‘우선관리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과 올해 중고생 2만여 명이 성적압박,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자살한 학생수는 ▲ 2008년 137명 ▲ 2009년 202명 ▲ 2010년 146명 ▲ 2011년 150명 ▲ 2012년 139명 ▲ 2013년 123명 ▲ 2014년 118명 ▲ 2015년 8월 기준 63명 등으로 매년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해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단위 학교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지역사회 전문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체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10대들의 잔혹하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민석 의원은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수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전국 귀농·귀촌인들의 새로운 메카로 '인기'

태안군, 귀농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 나서 지난해 225가구 전입

태안군이 전국 귀농·귀촌인들의 '제2의 고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인구는 총 225가구 413명으로, 지난 2010년 57가구에서 2011년 33가구, 2012년 467가구, 2013년 105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 귀농 가구의 60%가 40~50대일 정도로 젊은 귀농층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일로를 걷던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귀농 비율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층의 증가와 농촌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귀농 인식 및 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의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조건, 그리고 각종 교육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



영, 귀농·귀촌 코레일 기차 현장 투어 등 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2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떠나 올해 태안군으로 귀농한 40대 김모 씨는 "귀농을 마음먹고 있던 중 태안에 놀러왔다가 이곳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인상에 반해 직장을 접고 이곳으로 귀농하게 됐다"며 "귀농 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귀농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며 몇 년간 귀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앞으로 태안군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근흥면 두아리 마을회관에서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화합 행사'가 열려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마련됐으며, 군은 '귀농인 집들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들이비용 50만원을 지원하고 한상기 군수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친선적인 환영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귀농·귀촌인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교감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우수상 수상

'후후' 우수한 사용자 친화성 인정

KT CS대표 유태열, www.kcscokt가 스펙터단원 '후후'가 지난 4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주관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사용자친화성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가 올해 처음 신설한 상으로, 사용자친화성, 개인정보보호, 정보제공, 가치 창출 등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람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을 평가해 우수 기술 및 서비스를 선정한다.

후후는 1500만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2200만건의 스펙정보와 1140B를 통해 스펙전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신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친화성을 인정받았다. 매일 후후에서 식별하는 통화 및 문자건수는 매일 약 19억건이며, 이중 5억건을 스펙전화로 걸러내고 있다.

또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 간편한 구성, 눈에 편안한 색감 등 사용자가 쉽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개선한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후후는 출시 2년여 만에 누적 다운로드 건수 15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권슈머 저널 '이비즈'와 '유비하인드' 조사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차원형 후후사업부장은 "후후가 사람친화적인 디지털 기술로 깨끗한 통신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후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통신사 마켓, 네이버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LM협의회' 열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본부장 이강신)는 지난 4월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관내 영업점 자산관리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하반기 LM협의회를 개최했다. LM(Lounge Manager)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AFPK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각 영업점에서 PB(우수) 고객을 관리하고 펀드, 방카 등 종합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전략상품 선정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2016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계좌이동제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강신 본부장은 "1%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의 기대 수익률에 맞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수익은 물론 손실 위험과 고객의 투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담능력을 갖춰 고객의 신뢰를 얻는 충남농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병배기자

베트남 닌빈성 실무대표단 아산시 방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당 중 풍(Dinh ChungPhung) 부성장이 이끄는 베트남 닌빈성의 교류협력 실무대표단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산시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대표단 방문은 아산시와 베트남 닌빈성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방문 성격으로 경제, 통상, 관광,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교류가능 사업을 발굴·협의를 위한

경제통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닌빈성은 면적이 약 1,400km로 아산시의 약 2.5배,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90km 거리에 있으며, 년 4만대 자동차 조립생산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탄 공장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관광명소 장안이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아산=리량주기자



사회적경제인 육성 아카데미 교육 성료

아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총 5회 걸쳐 진행

아산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시한 '2015년 아산시 사회적경제인 육성 아카데미 교육'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 참여와 다양한 법안 고객체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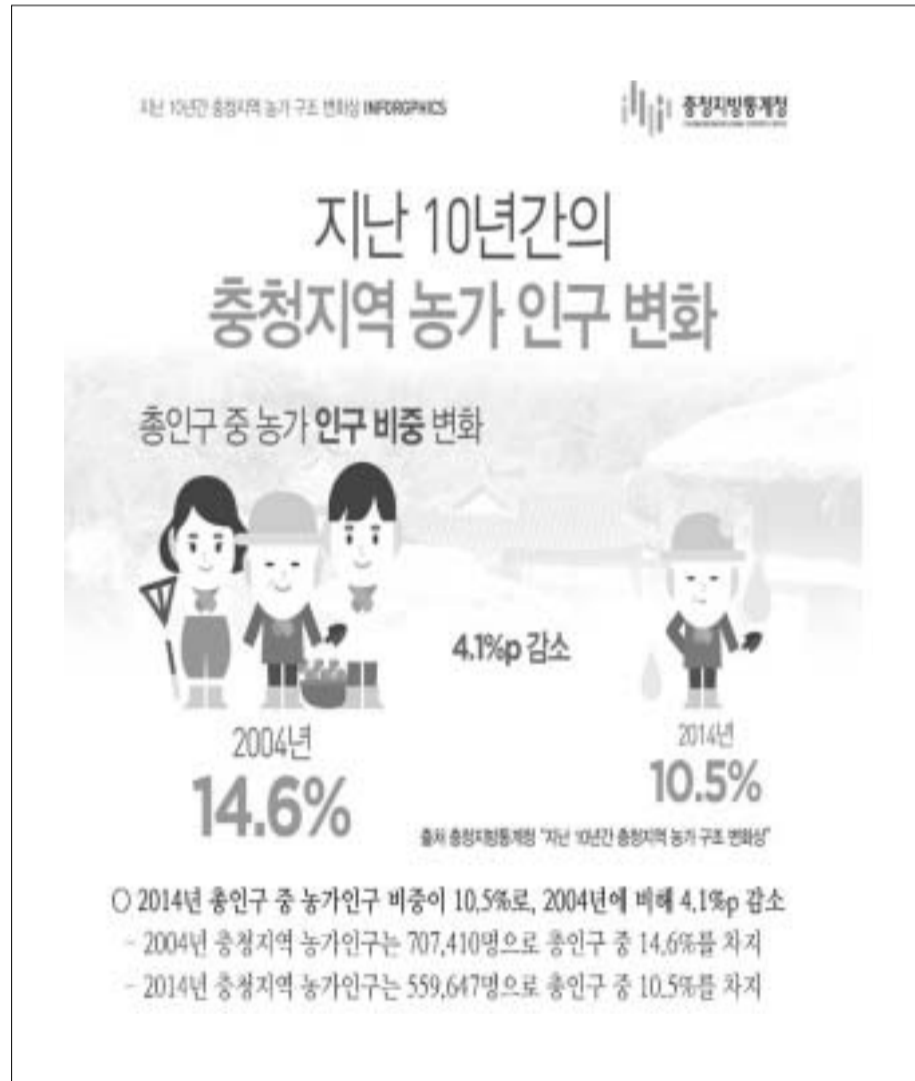
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의 사회적경제 가치경영을 비롯해 사업아이템 발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선진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으로 구성 운영했으며 총 55명이 수강해 28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됐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바쁜 시간을 내어 아산시가 주최한 사회적경제 육성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산의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육성·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경제 체계에 구성요소로 10월경 인사사회계·인사노무 등 심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에 문의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전투데이 후원회 일동

“대졸이상 성인남녀 59%, 학벌 취업 영향 미친다”

<사람인> 손해 본다는 생각 ‘지방 사립 대학’(41.1%) 응답자 가장 많아

대졸이상의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본인의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움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대표 이정근이 대졸 이상의 성인남녀 3,373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3%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이때, 절반 이상이 60.8%가 자신은 ‘손해 보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벌에 따라 살펴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지방 사립 대학’(41.1%) 응답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38.4%), ‘지방 거점 국립 대학’

(33.4%), ‘해의 대학’(33.3%), ‘서울 소재 대학’(31%), ‘SKY 등 명문대학’(21.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본인의 학벌로 취업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서류전형에서 계속 탈락해서’(49.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뽑았다. 다음으로 ‘학교별 서류 필터링 기준이 있다고 해서’(40.3%), ‘학교별 취업 양극화가 심해서’(34.5%), ‘교수, 선배의 도움 받을 기회가 없어서’(22%), ‘모교에 채용설명회 등의 기회가 없어서’(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들은 학벌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무 경험 등 쌓아 올린 채용 경력’(45.4%), ‘복수응답’, ‘토익 등 스펙

업그레이드’(37.8%), ‘더 나은 대학으로 편입, 재입학 준비’(18%), ‘공무원 시험 준비’(15.5%)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66.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56.5%(복수응답)가 ‘사회 생활은 학벌만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를 선택했다. 뒤이어 ‘학벌보다 중요한 기준이 많아서’(51.3%), ‘직무와 연관된 게 아니어서’(39.9%), ‘학벌을 만회할 기회를 박탈해서’(27.4%), ‘좋은 학벌의 기준이 불분명해서’(24.9%) 등의 답변 순이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1,128명)들은 그 이유로 ‘노력의 결과라

서’(42.2%, 복수응답), ‘다른 스펙처럼 객관적인 기준이라서’(39.1%),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라서’(32.9%), ‘학벌이 우수하면 역량도 우수해서’(24%) 등을 들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직장인(1,813명)의 16.3%는 직장생활 중에도 학벌로 인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평가 받음’(50.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학연, 라인외 영향을 받음’(33.9%), ‘작은 실수도 학벌 때문에 부각됨’(30.2%), ‘학벌로 업무 기대치가 높음’(23.4%), ‘핵심 업무를 맡지 못함’(19.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정근기자

충남교육청,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꿈과 열정을... 장애 딛고 힘찬 도전 시작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일 예산군공설운동장에서 장애학생 930명, 지도교사, 학부모 등 1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열었다. 충남교육청과 삼성 SD 천안사업장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충남장애인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사랑의 밤차 경기·충남지부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대회종목은 총 146개 종목으로 육상 98개 육상종목과 48개 보급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수대표 부르고 이주인 학생(고3)과 심판대표 충남육상연맹 남용현 심판의 대표선서를 통해 충남선수단 전체가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축제의 한마당에서 우정과 화합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금년에는 2013년 대회부터 공식 후원으로 주최해 온 삼성SD 천안사업장 임직원과 지역대학, 대한적십자 등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내포=이지용기자



논산 백석초, 소방안전체험훈련 실시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 지원... 전교생 대상 소·소·심 바로알기

백석초등학교(교장 강해순)는 9월 3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소·심 바로알기 소방안전체험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불의의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소방안전체험훈련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로 시작되었다. 유치원부터 6학년이 이르기까지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의 안전편을 뿜어 소화기 분사를 했으며 이어진 안전체험치량에 답습해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논산=한대수기자

아산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아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로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이 합동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학교정 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규정 및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보호법관련 표시 의무 등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 배회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 있다.

민정일 교육지원담당관은 “아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교육청, 3개월 간 실무수습 거친 뒤 내년 1월 정식 발령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 교육 수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달 지방공무원 공채에 최종합격 신규임용 예정자 39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4일 모두 마쳤다.

이들은 지난 달 24일부터 2주 간의 일정으로 세종교육연구원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세종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청렴, 성실, 친절·공정,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도 함께 함양했다.

특히, 교육예산 및 학교 회계에 대한 기본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지방교육청·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포인의 사용방법을 익히는 등 실무 능력도 갖췄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교직원화를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전국 고등학생 조리제빵경연대회 열어

당진 신성대학교,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개최

당진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목)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 고등학생 조리제빵경연대회를 호텔조리제빵계열 실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조리제빵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 요리분야의 전문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외국인에게 알리고 싶은 한국요리와 샌드위치를 주제로 조리 및 제빵 2개 종목에서 경합했고, 위생, 요리의 창작성 및 심용성 등의 항목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김승표, 김준혁 학생(상동고등학교)이 대상을, 김선아 학생(당진고등학교)과 이찬영 학생(당진 송악고등학교)이 조리부문 및 제빵 부문에서 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 학동초, 동전 2백만원 모아 사랑나눔 실천 서산 학동초(교장 정덕태)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랑나눔 동전모으기’를 실천했다.

청양교육지원청,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청렴캠페인 실시 청양고추 구기제축제와 함께 청렴한 세상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지난 4일, 청양고추 구기제 축제를 맞이하여 학부모청렴지킴이, 청정학교서포터즈, 소통동아리 “알프스” 회원들이 백석건강공원 입원에서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부모청렴지킴이는 청남초, 남양초 학부모로 구성되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정학교서포터

즈는 학부모, 교직원등으로 구성되어 불법선조금 모금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청양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으로 구성된 소통동아리 “알프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청렴관련 UCC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청양=정삼범기자



공주교육지원청, NIE 학부모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은 지난 7월 21일 NIE 학부모 학습동아리 1차 모임을 시작으로 9월 21일 4차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지역 초·중·고등학교 참여 요청 쇄도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성황리 접수 중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015년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에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년에는 6000여명의 손편지가 접수됐지만, 올해에는 시작하지 4일 만에 25개 학교에서 약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대전충남병무청에서는 참여를 희망한 학교나 단체에 자체 제작한 엽서를 보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 편지쓰기 페이지(www.wmma-event1.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운영지원과☎042-250-4227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수 대전충남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만큼 많은 국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외부 고객모니터링 통한 청렴 조직문화 조성 제5기 청렴모니터단 공개 모집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전영석)은 외부 고객모니터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5기 청렴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5기 청렴모니터단’은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선정된 모니터단 위원은 매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각종 공모 심사 참여, 해양체험활동 참관을 통한 생생한 의견 청취 등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운영 개선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전 교육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에 희망하는 자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http://www.djseaor.kr/) 공지사항이나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에서 모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dlwogns011@eduang.net) 또는 팩스(041-930-8420)로 제출하면 되며, 모집결과는 9월 24일까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안내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특정

월요주간보고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7일 오전 8시 20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월요주간보고를 주재,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 이사회 참석.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업무 협약식



김동일 보령시장= 7일 오전 8시 2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사항 보고,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보령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업무 협약식 참석.

시민대중 건립 간담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7일 오전 9시 1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발전유공시민 시상식에 참석,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시민대중 건립 간담회 참석.

푸른환경탐구회 간담회



박동철 금산군수= 7일 오전 11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푸른환경탐구회 간담회 참석.

공주시한미음장학회 이사회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7일 오후 2시 공주시청에서 열리는 제3회 공주시한미음장학회 이사회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공모전

공주시, 공공부문·법질서·국민 안전·시민불편 등 4개 분야 아이디어 접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비정상,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법령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기타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시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항로 1 공주시청 시장발전연구과, 전자우편(writer1213@kora.kr), 팩스(041-840-2338)로 하면 된다.

공주시 시장발전연구과 정책개발팀 박미숙 담당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한 소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 오천항 ‘키조개’ 본격 채취 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피부미용에도 탁월

충남 보령의 오천항에는 7-8월 산란기 금어기간이 끝난 키조개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취로 미시가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키조개는 농가에서 곡식을 까불어 돌이나 쭉정이 같은 것을 골라내는 도구인 키(箕)를 넣어 따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크기도 크지만 다른 조개보다 부드러우면서 서도 쫄깃하고, 향긋하며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것이 가을 키조개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키조개 칼로리가 100g 당 57kcal로 칼로리와 지방함량이 낮아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또한 다량의 타우린이 들어 있어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다.

한편, 키조개로 유명한 오천항은 천수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항으로 바다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옛부터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수영이 있는 한반도 중부 해안 지역의 군사 요충지로 쓰였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3200필지 대상... 이달 말까지 열람·의견제출 접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소는 공주시청 토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이며,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의 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지가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게 된다.

2015 충남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금산군 ‘마중물팀’ 최우수상

2015년 충남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에서 금산군의 ‘마중물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청남도 12개 시·군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수화를 통한 뮤지컬과 연극을 선보였으며, 대회를 통해 농이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다가갔다.

금산 마중물팀은 의상과 소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등 주민복지지원실과 읍면 공무원이 혼연일체로 5개월 동안 업무와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방귀와 싸움’이라는 연극을 통해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 그리고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최우수상의 결과를 얻어냈다.

금산=김남규기자

공주=정상범기자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승객 돈 찾아준 택시기사 ‘훈훈’

문원우 씨, 두고 내린 현금 160만원 찾아줘



서산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160만원을 찾아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

뒤늦게 지갑을 발견한 택시기사 문원우(68·남)씨는 승객을 내려준 1호광장을 다시 찾았고 역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자신이 내린 곳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김모씨를 만나 지갑을 되돌려주게 됐다.

시례를 하겠다는 김모씨의 말을 뒤로 하고 택시기사는 급히 자리를 떴다고 한다.

지갑을 잃어버렸던 김모씨의 아들 박모씨가 택시기사를 칭찬해 달라는 내용을 시청에 부탁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씨는 “나도 돈을 잃어버린 입장이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며 “그 심정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럽다’며 멋쩍어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장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에 문씨를 선행시민으로 표창할 예정이다.

BCG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실시

결핵(BCG) 피내용 예방접종 백신의 국내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보건소가 사전예약을 통한 신생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8월말 이후 9월 출생아는 9월 넷째 주(21일 이후)부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BCG 예방접종은 보통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지만, 생후 89일까지는 결핵감염검사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으로 실시하는 경피접종은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어 현행대로 관내 연세소아과, 우리소아과, 중앙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람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BCG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BCG 예방접종 예약관련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41-750-4388)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물 안 남기기 시민운동 펼쳐

서산시, 서한문 발송·동영상 제작 SNS 통해 홍보

서산시는 지난 3일 동부시장에서 영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음식물 안 남기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산시지부 산하 영업주들과 서산라이온스·포터리 등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시장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시민 실천수칙 안내문 배부 등 음식점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올 8월부터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동참 협조 서한문 발송 및 동영상 제작 SNS를 통해 홍보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만 6천여톤에 처리비용은 2억원이 든다”며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Advertisement for 'Hanawee' (하나위) cleaning services. It features the slogan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만들기' (Making clean and comfortable space) and '그리스트랩 청소 및 유지 보수' (Greistrap cleaning and maintenance). The ad lists services for schools, hospitals, and restaurants, including sink and drain cleaning, and mold prevention.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Hanawee at 291 Bongeom-dong, Daejeon, and a phone number: 070-8289-1700.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 8시30분)



수경은 주회장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민을 간신히 찾은 수경은 경민과 주회장의 병원에 가고, 결국 함께 주회장의 임종을 지켜본다. 한편, 경숙은 봉주와 부부 회장품 대표로 주회장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현주와 마주치는데..

▲이브의 사랑 (MBC오전 7시50분)

캘리 한진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저마다 각자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 캘리는 자신을 첩 킬러나

의 아시아 총괄 본부장이라고 소개한다. 구회장이정갑은 캘리로부터 투자를 받아 리조트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거라고 하는데, 강모(이재황)와 강민(이동하)은 반대하며 나선다.

▲별이 되어 빛나리 (KBS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온 동팔은 애숙에게 자신이 재균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하고 정례네 가족들은 재균의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정례는 얼마 전 대영방직을 넘기는 문제로 윤회장과 재균이 갈등을 빚었음을 알고 마침내 윤회장이 재균을 해친 것이라고 믿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관상 (OCN 오후 4시00분)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조선.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바로 '관상'이다.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관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가장 활발하게 유행하며 관상학으로 발전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 처남 '평헌', 아들 '진행'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관상 보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용한 관상쟁이로 한 양 바닥에 소문이 돌던 무렵, '내경'은 '김종서'로부터 사형부활 도와 인재를 응용하라는 명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AI (채널CGV 오후 10시00분)

극지방의 해빙으로 인해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어느 미래. 인류의 과학문명은 천문학적인 속도로 발전하여 인공 지능을 지닌 로봇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집안일,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오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까지. 로봇이 인간의 편익을 위해 갖은 일을 대신하게 된다.

어느날, 하비 박사(윌리엄 허트)은 로봇공학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자,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 이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그는 로보트사인 사이버트론(스카)에서 감정을 지닌 최초의 인공 지능 로봇, 데이비드(하비)를 오스먼트(분)를 탄생시킨다. 데이비드는 사이버트론(스카)의 직원인 헨리 스윈튼(샘 로빈슨)과 모니카(프란시스 오코너)의 집에 살며 케이스(로빈슨)와 스윈튼 부부의 진아들 마틴(블레이크)을 길러 치료와이 개발될 때까지 병들고 있는 상태. 인간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데이비드는 모니카를 엄마로 여기며 점차 인간사회에 적응해간다. 하지만 아들 역할도 잠시, 마틴이 되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슈퍼로봇이 데디베어와 함께 숲 속에 버려진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리이프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programs for each channel from 6:00 to 11:00.

'엄마' 홍수현, 귀여운 속물녀 완벽 변신...성공적 복귀

첫 회부터 주말인방극장 시청자들 사로잡아



배우 홍수현이 '귀여운 속물녀'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첫 회부터 주말인방극장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엄마'에서 모친의 영향을 받아 세상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라

한편, 홀로 자신들을 키워주며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효도는 셀프' 라면서도 어떻게든 유산은 받겠다는 쾌활한 자신들을 향해 펼치는 통쾌한 복수전을 그린 MBC 주말드라마 '엄마'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45분에 방송된다.

고 핑계를 대고 빠져 나오는 등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실속주의 캐릭터의 면모를 드러내, 향후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높였다.

매 작품마다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홍수현은 솔직 발랄하면서도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캐릭터에 완벽 빙의한 모습으로 첫 방송부터 극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칫 앞뒤를 보일 수 있는 현실주의형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특유의 리얼리즘을 더해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홀로 자신들을 키워주며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효도는 셀프' 라면서도 어떻게든 유산은 받겠다는 쾌활한 자신들을 향해 펼치는 통쾌한 복수전을 그린 MBC 주말드라마 '엄마'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45분에 방송된다.

아산시, 은행나무길에서

"시월의 공연을"



10월 아산의 대표 거리 '은행나무길'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2013년 차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일상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은행나무길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지만 소중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So So한 콘서트'는 기존의 대규모 공연 무대가 아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흥겨움을 선사할 것이다.

▲블금&밴드

10월 9일과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블금&밴드'는 그랩사운드가 열정 가득한 무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흔히 블금으로 표현되는 금요일 저녁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 줄 그랩사운드 공연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등학교 밴드에서 직장인 밴드와 다양한 계층의 밴드가 다양한 밴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게스트로 아산출신의 인디밴드를 초청하여 더욱 흥겨운 무대가 될 것이다.

▲토2류토요일 낮 2시에 만나

10월 24일(토) 낮 2시에 진행되는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된다. 금요일 저녁 공연이 밴드 공연 중심이라면 토요일 낮 2시에는 국악을 포함한 악기 연주, 7080 노래와 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함께 신세대 방송인들과 우리 춤 등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

이번 'So So한 콘서트'의 특징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으로 진행된다.

'엔트맨' 개봉 4일만 100만 관객 돌파...NEW히어로의 위업



지난 3일 개봉 직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전국 관객을 열광시킨 마블의 NEW 히어로 '엔트맨'이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해 전극을 휩쓸고 있다. (원)영진위 영화진흥산업실시간 관객수 집계(오후 12시 10분 기준)에 따르면, '엔트맨'은 107만 1425명을 기록했다. 이는 마블 시리즈 작품 중 개봉 5일째 백만 관객을 동원한 '아이언 맨', '토르: 다크 월드' 보다 하루 빠르며 개봉 4일째 102만 9417명을 달성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보다도 빠른 속도로 '엔트맨'이 마블 히어로 대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알렸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충남지부, 2015 전진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한국법무보호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박대규)는 지난 3일 대전충남소년수련마을(충주점선동)에서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구분별 이시장을 비롯해 백촌회 대전광역시 정부부시장, 문무일 대전지방경찰청 검사장, 전문수 보호위원연합회장(다우건설 대표), 이희봉 법사령위원연합회장 등 보호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총연맹 서구지회, 장애인과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김영문 회장회 회원 70명은 지난 4일 서구도솔체육관에서 열린 서구장애인생활체육회 주관 체육대회에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한발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실시 9월 2-3일까지 산업정보관 D-301강의실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고용센터 최상호 주무관의 강의로 NCS 도입 배경, 인적성검사 등 기존 채용방식과 차이점, NCS 기반 채용공고 이해와 입사서류 작성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됐다.



서산시 팥콩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사령의 배추 파종 서산시 팥콩면(이경구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정식, 김순자) 회원 10여명은 3(목) 어송리 소재 500여평의 밭에 김장 배추 1천500포기를 파종했다. 이번 파종한 배추는 올 가을에 수확해 김장을 담겨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장학금 지원 아산시 온양3동(동장 전병관)과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정호)은 지난 2일, 온양3동 회의실에서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발족 이후 6년째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9월 중 추석맞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100가정에 대하여 현금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계룡산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지난 4일 수송골 내이치센터에서 4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국가사문학관 이정숙 해설사를 초청, 한시 및 현대시를 통한 감성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조폐공사 『화폐의 추억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은 지난 3일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와 함께 대전·세종지역 국가유공자 및 보호가족 80명을 초대해 화폐박물관 및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 인재 육성 위해 뜻 모아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 기탁 '귀감' 공주시청 사무관 임용공무원 6명, 장학금 기탁

지난 8월 사무관 임용을 받은 공주시청 6명의 공무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자로 사무관에 임용된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오종휘 건강과장, 김영신 신관동장, 양재웅 율송동장, 정우원 전문위원 등 6명의 공무원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3일 장학금 3천만원을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 기탁했다.

특히 이들 사무관 임용자 대부분은 지역 발전을 위해 30여년간 많은 바 임무에 몸소 열심히 일하면서 그동안 교육도시 공주시 공무원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사무관 임용 교육기간동안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훈훈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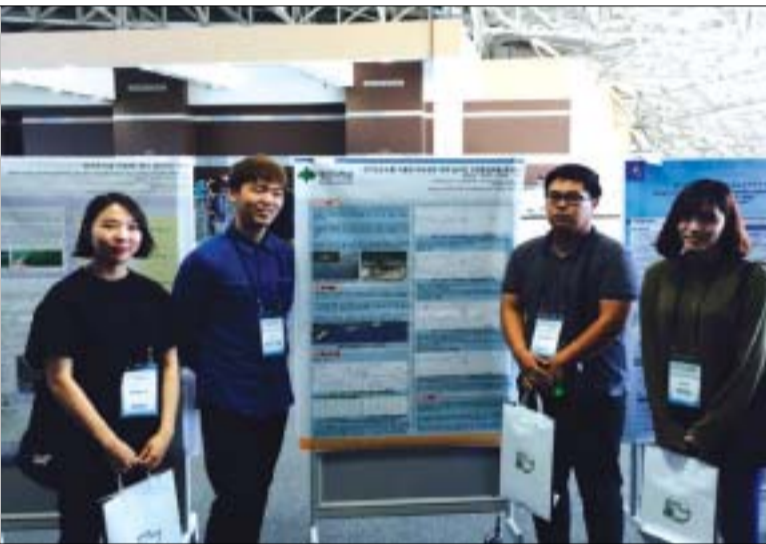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양재웅 율송동장, 오시덕 공주시장, 김영신 신관동장, 정우원 전문위원, 오종휘 건강과장이 기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동양건설(주) 정해상 대표는 지난해 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윙윙건설 전용갑 대표도 300만원을 기탁,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생 '공동학술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학과장 조윤철 교수) 학부 학생들이 지난 달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거행된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 공동주최하는 2015 공동학술발표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한 임봉수 지도교수는 "실험실 동아리 <물사랑> 팀원들이 방학중 실험실과 현장에서 경험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현장실습 및 논문작성 등의 경험들이 이번 경연대회까지 연계되어 학생들 개인전공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더 확산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도금폐수처리공정의 효율 평가 및 특성을 발표한 3학년 한만형(발표자), 심주현, 곽영지, 2학년 박정수 학생 등 3개팀이 최우수 및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아산 희망카페 봉사회,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돕기 실시



지난 5일 아산 희망카페 봉사회(회장 윤은중)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회원들의 자비로 실시되며 이번행사는 안희정을 비롯해 윤은중회장을 비롯해 이영국 박사모 아산지회장,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위원, 이건영, 안예숙 희망카페 봉사회 총무, 이기원 등 회원들이 선장 장애폭리자

유한집을 찾아 음식을 제공하고 주변정리 및 집조제 등 환경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윤은중 회장은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분들이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건보공단대전본부, 충북지역세 번째

옥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지난 4일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민순)에서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작은 도서서관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3000여 임직원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는 작은 도서서관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33곳에 개소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는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 중구 외국박민장을 위한 작은 도서서관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덕홍 국회의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한 내빈, 다문화가족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덕홍 국회의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한 내빈, 다문화가족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양군이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찾아가는 아빠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아빠교실은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관계형성을 돕고 육아의 즐거움과 가치를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일 정산어린이집에서 운영된 아빠교실에서는 피자와 케이크 만들기,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댄스, 내 아이에게 손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여성전담으로 여겨지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육아가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동정 ● ● ●



안희정 충남도지사 = 7일 오전 10시 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 참석. 오후 4시 대전충남학생기숙사에서 열리는 충남학생기숙사 신축이전 개원식에 참석.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7일 오후 5시에 천안선도장학회에서 열리는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에 참석.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 선정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도로공사, 대덕구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난 3일 대전대덕구 오정동 대덕구청 구민의 사랑방에서 저소득층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구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大田투데이

후 원 | 한국장애훈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대전지사 손 손 용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usan Forestry Cooperative 한국농어촌공사 한양지사 한양지사 의 사 장 조 주 본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한국수방발전회 태안발전본부